



2003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대리)

1. 2003년 국내 경제동향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12월은 항상 뒤를 돌아 보게 하지만 결코 좋은 기억만 남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년의 끝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나 올해를 기억하는 단어로는 참여정부, 사스, 새만금, 청계천, 로또, 이라크, 특검, 부안, 매미, 화물연대, 지하철, 복핵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단어들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기에 내년에는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우리경제는 1/4분기에 이어 전기대비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파업과 태풍피해를 입은데다 내수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2003년 연간 성장률은 전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에 연평균 2.7% 상승한 소비자 물가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2002년에 급격히 확대된 가계신용이 급격히 조정되는 과정에서 크게 침체되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상회하는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는 연간 약 153억달러 흑자를 보일 전망이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설비투자는 금년중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업부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되어 연간으로 -0.3%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투자의 지속적인 높은 증가와 기타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에 기인하여 3/4분기까지 호조를 보이다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등에 따라 4/4분기 중 3%대의 둔화로 연간으로는 6%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2003년 국내 건설동향

2001년에 5.3%의 증가로 시작된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금년에도 이어져 6%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이 주차장 기준 강화를 앞두고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이 급증하였으나 금년은 일반 주거지역 구분 세분화 및 용적률 강화를 앞두고 대거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는 등의 재건축 사업과 민자사업이 늘어나면서 금년의 건설경기를 이끌었다.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강도를 더하여 결국 올해 16번째인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있어 가수요의 급격한 이탈은

물론 실수요까지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냉각시킬 우려를 주고있다.

건설지표 가운데 먼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다가 금년 2월에 이르러서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보면 1월 23.3% ↑, 2월 9.2% ↓, 3월 2.5% ↓, 4월 29.2% ↓, 5월 27.6% ↓, 6월 156.2% ↑, 7월 31.8% ↑, 8월 10.8% ↓, 9월의 31.5% ↓, 10월 27.2% ↓로 1~10월 누계치는 1억 1,912만 1,000㎡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1월과 6, 7월 이외에는 나머지 7개월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월의 급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고 용적률이 강화됨에 따라 중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허가(착공)신청을 서두른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금년 10월 이후의 건축허가 면적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표-1>)

용도별 실적을 보면 주거용이 아파트 건설 확대에 힘입어 11.6%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92.6% 늘어난 상업용은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년의 반사효과로 8.2% 감소하였고 내수부진에 따른 기업

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공업용도 0.4% 줄어들었다.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지속적인 학교시설 증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기타(농수산용, 공공용)는 민자사업의 증가로 3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10월까지 수도권 4.3%, 지방 4.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실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근접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2>)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문교사회용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급증했던 상업용은 전년수준에 머물고 주거용과 공업용 또한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3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59조 7,1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20.7% 증가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착공과는 달리 금년 건설경기의 호조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표-3>)

<표-1> 연도별 건축허가실적

(단위 : 천㎡, %)

구분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0월	
						전년대비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44,606	41,283	47,856	57,320	51,347	111.6
	상업용	11,746	18,882	25,888	49,862	38,939	91.8
	공업용	7,824	11,646	13,538	15,366	12,737	99.6
	문교사회	4,478	5,126	5,534	7,489	6,618	108.2
	기타	3,880	4,122	4,901	8,697	9,480	139.4
구조별	철골조	66,192	75,292	91,562	136,221	117,261	104.8
	조적조	2,340	2,056	2,056	2,074	1,516	83.1
	목조	142	178	181	171	333	238.9
	기타	3,860	3,533	3,918	268	10	3.8
합계	72,534	81,059	97,717	138,734	119,121	104.3	

* 자료 : 건설교통부

〈표-2〉 연도별 건축착공실적

(단위 : 천m²,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24,537	26,730	33,206	40,086	35,002	101.4
	상업용	10,566	14,109	20,165	38,131	32,639	100.2
	공업용	7,273	10,126	9,594	13,476	11,238	101.4
	문교사회				5,777	6,132	128.9
	기타	7,077	6,875	7,797	7,669	6,352	100.3
구조별	철골조	43,001	52,682	65,157	102,962	89,808	102.8
	조적조	2,478	1,751	1,908	1,818	1,312	82.0
	목조	167	120	106	140	234	196.2
	기타	3,807	3,287	3,591	219	9	4.2
합계	49,453	57,840	70,762	105,139	91,363	102.3	

* 자료 : 건설교통부.

* 주 : 문교·사회용은 2002년 1월부터 조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45조 17억원으로 전년대비 37.9%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은 12조 6,456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에 그쳤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44조 7,247억원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14조 8,824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늘어나 민간부문의 건축

〈표-3〉 연도별 건설수주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143,876	131,226	196,142	181,190	126,456	110.0
	민간	209,431	259,190	286,773	410,038	450,017	137.9
	제조업	18,928	28,595	27,120	32,707	35,361	135.2
	비제조업	190,503	230,595	259,653	377,331	414,656	138.2
	국내외국기관	1,276	914	1,121	1,881	930	61.3
	민자	8,409	26,445	25,913	25,462	19,719	225.1
공사종류별	건축	224,545	272,847	308,819	415,266	447,247	135.6
	주택	174,017	200,312	215,422	296,659	346,499	145.5
	비주택	50,528	72,535	93,397	118,607	100,748	109.7
	토목	136,526	143,536	199,682	201,835	148,824	123.8
	전문공사	1,921	1,392	1,448	1,470	1,051	79.3
합계	362,992	417,775	509,949	618,571	597,122	132.3	

* 자료 : 통계청.

* 주 :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 중 기성실적 상위 290개 업체 실적.

공사, 특히 주택건설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설 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시멘트는 건설의 주요 기초소재로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건설공사의 외부요인인 기상여건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건설투자를 예로 볼 때 금년의 예상액(KDI, 삼성연, 한경연, 현대연, 엘지연 평균) 79조 7,708억원은 1997년 89조 2,848억원의 89.3% 수준으로 시멘트 내수 또한 지난 1997년을 정점으로 1998년 27.8% 감소한 후 1999년 0.2% ↑, 2000년 7.3% ↑, 2001년 4.3% ↑, 2002년 8.5% ↑에서 금년은 약

6.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1997년의 93.4%에 머물러 외환위기 이전의 내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4>)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연중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나 금년의 경우 11월까지 2,005mm(서울 기준)로 전년 동기간의 1,373mm에 비교할 경우에도 강수량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하절기의 집중호우, 가을의 잦은 비 그리고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재산피해액 5조 6,000억원, 인명피해 129명(사망116명, 실종13명)으로 지난해 루사를 뛰어넘는 사상최대의 피해를 안겼다. 금년중 발생한 21개의 태풍 가운데 2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쳐 일기 조건은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도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12.2% ↑, 2/4분기 3.6% ↑, 3/4분기 6.4% ↑,

<표-4> 2003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11,317 (112.2)	581	11,898	11,644 (107.8)	283	11,927	1,167
2/4 분기	16,518 (103.6)	658	17,177	16,768 (104.5)	410	17,178	1,168
상 반 기	27,835 (107.0)	1,239	29,074	28,412 (105.8)	693	29,105	
3/4 분기	13,514 (106.4)	795	14,309	14,290 (107.3)	385	14,675	1,534
4/4 분기	16,351 (105.0)	596	16,947	16,198 (105.6)	622	16,820	1,353
하 반 기	29,865 (105.6)	1,391	31,256	30,488 (106.4)	1,007	31,495	
합 계	57,700 (106.3)	2,630	60,330	58,900 (106.1)	1,700	60,600	

* 주 : 12월은 추정치, 연간 크링카 수출 530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표-5〉 최근 10년간(1994년~2003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2.0	57.2	106.2	71.8	117.7	118.4	112.5	116.2	94.0	97.3	97.2	103.1	99.2	120.4	118.2	99.9	112.8	106.0
구성비	4.3	4.8	8.9	18.0	9.8	9.8	9.4	29.0	47.0	8.1	8.1	8.6	24.8	10.0	9.9	8.3	28.2	53.0

4/4분기 5.0%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 보다 6.3% 늘어난 5,770만톤이 기대된다.

늘어난 형태로 1/4분기의 내수 비중이 늘어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 구분되는 특징도 최근 들어서는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9~11월이 연중 성수기를 이루며 7월, 8월,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2003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18.0%, 2/4분기 29.0%, 3/4분기 24.8%, 4/4분기 28.2%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7.0%, 하반기 53.0%로 각각 2,783만 5,000톤, 2,986만 5,000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203만톤 더 많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반기 구성비인 47.0%, 53.0% 보다 상반기가 1.2%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시멘트 국내출하는 크게 관급자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포장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외형적인 면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표-6〉) 먼저 수요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인 수요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전체 국내출하 4,763만 7,000톤 중 민수가 4,698만 8,000톤으로 98.6%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4%인 64만 9,000톤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민수비율인 98.7% 보다 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전년의 98.7%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은 전년과 금년에 걸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복구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한편 출하형태에 따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

〈표-6〉 2003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0월	
							전년대비
수 요 별	민 수	42,957	46,930	49,283	53,603	46,988	107.5
	관 수	1,764	1,070	772	689	649	116.5
	민수비중	96.1	97.8	98.5	98.7	98.6	
품 종 별	포 장	5,417	5,313	5,646	5,919	4,826	98.0
	별 크	39,304	42,687	44,409	48,373	42,811	108.8
	별크화율	87.9	88.9	88.7	89.1	89.9	
합 계		44,721	48,000	50,055	54,292	47,637	107.6

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4,281만 1,000톤으로 89.9%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88.9% 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여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전년의 89.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된데다 최근의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슬럼프치를 상향하는 등 품질향상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일본의 경우 1990년에 이미 91.6%이던 벌크화율이 2002년에 95.5%인 점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예견할 수 있다.

나. 생 산

금년의 생산실적을 반제품인 크링카와 완제품인 시멘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크링카 생산은 5,1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046만 9,000톤 6.2% ↑, 2/4분기 1,418만 1,000톤 1.4% ↑, 3/4분기 1,339만 7,000톤 7.0% ↑, 4/4분기 1,365만 3,000톤 0.2% ↓ 등으로 3/4분기의 증가와 4/4분기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인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164만 4,000톤 7.8% ↑, 2/4분기 1,676만 8,000톤 4.5% ↑, 3/4분기 1,429만 7,000톤 7.3% ↑, 4/4분기 1,619만 8,000톤 5.6% ↑ 등으로 전 분기에 걸쳐 고른 증가를 보여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6.1% 늘어난 5,89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은 전년과 달리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시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수송장애로 인한 약간의 생산차질은 피할 수 없었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83.6%로 예상되어 1996년 92.5%, 1997년 94.7%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나 전년의 80.9% 보다는 소폭 상승하여 199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수출입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시멘트 국내수요로 인한 공급과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때 500만톤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시멘트 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국제 시멘트 가격의 바닥세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세계 시멘트 산업 전반적인 초과 공급 상황에 따른 저가덤핑수출의 남발로 수출단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대 시멘트 수입국이던 미국의 생산능력 증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999년 499만 8,000톤에 달했던 수출이 2002년에는 339만 3,000톤으로 급감하였고 올 해에는 내수 증가세로 인한 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하반기에는 한때 변동비마저 보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절상이 될 만큼 환율하락에 따른 타격이 컸으며 선박운임마저 급상승하는 악재로 전년보다 6.9% 감소한 316만톤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실적을 보면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15개국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년엔 없었던 나이지리아로의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서아프리카 방면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나타났다.(〈표-7〉)

품종별로 살펴보면 시멘트는 263만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반면 크링카는 53만톤으로 전년대비 41.5% 감소하여 전체 수출실적은 6.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수출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의 경우 83.2%로 전년대비 거의 10.0%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된 크링카 수출대상국이었던 서아프리카 제국으로의 물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국제시장에서의 크링카 단가가 너무 낮은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표-8〉)

〈표-7〉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미국	일본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쉬	가나	토고	하이브리코스트	카메룬	베냉	베트남	중국
2002년	1,671	788		118	264		220	23	110	75	91
2003. 1~11	1,530	749	161	103	88	84	69	49	35	26	

* 주 : 크링카 포함.

사별 수출실적은 크링카 수출 포함 동양 138만 1,000톤(-11.1%), 쌍용 139만 8,000톤(-1.1%), 한일 5,000톤(-28.6%), 성신 36만 9,000톤(-4.4%), 한라 7,000톤(-80.0%)으로 추정되며 각사 공히 감소세로 나타났다.

한라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한라의 크링카 수출 전량이 성신과의 교환수출물량인 것에 기인하며 이와같은 내륙사와 연안사간의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간 25만톤, 한라와 성신간 11만 9,000톤으로 총 36만 9,000톤을 기록,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시멘트 수출형태는 벌크 수출로 261만 8,000톤이 예상되며 금년에도 포장 수출은 1만 2,000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내공급 부족시 수급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수입은 내수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시멘트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급증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48.5% 늘어난 177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중국산 시멘트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향후 수입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링카 수입은 7만톤에 불과하겠으나 시멘트는

17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입 러시는 기존의 대한시멘트, 한일대우 뿐만이 아니라 기타 소규모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입에 기인한다.

크링카 포함, 일본에서의 수입은 54만 3,000톤으로 전년보다 63.6% 증가, 중국에서의 수입은 115만 7,000톤으로 전년대비 34.5% 늘 것으로 추정된다. (〈표-9〉)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쉽지 않은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계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의 시멘트의 재고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13만 7,000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6,060만톤(수입 170만톤 포함), 수요가 6,033만톤(수출 263만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35만 3,000톤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표-10〉)

지난해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5, 6월과 11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크링카	1,337	940	1,645	905	530
시멘트	3,661	3,946	3,001	2,488	2,630
합계	4,998	4,886	4,646	3,393	3,160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크링카	480	162	96	3	70
시멘트	135	518	989	1,189	1,700
합계	615	680	1,085	1,192	1,770

〈표-10〉 2003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238	1,587	1,478	1,206	1,145	1,048	1,438	1,568	1,914	1,481	1,287	1,458
시멘트	1,380	1,402	1,167	1,346	1,137	1,168	1,595	1,642	1,534	1,213	1,382	1,353

월 그리고 수해로 생산차질을 빚은 9월에는 지역적으로 시멘트 재고가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금년은 1~3월의 동절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전년보다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재고부족이라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마. 수 송

1998년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선 시멘트 수송량은 1999년 들어서 정부의 인위적인 내수 부양 정책과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수주량의 증가와 함께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들어 10월까지 집계한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4.6%가 증가한 4,951만톤을 수송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수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수요량은 늘어난 반면 수출량은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송수단별로 나누어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선박을 통한 수송분담비가 전체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컸으나 철도와 공로수송의 증가로 인해 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시멘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3개사가 국내 수요량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마진폭이 적은 수출 물량을 정책적으로 줄여서 내수 물동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성수기에 문전 및 적기 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와 BCT를 선박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멘트 수송과 관련된 올해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로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회 전반에 몰아친 노사갈등과 노동정책의 표류에 기인한 철도노조의 파업과 화물연대운송거부사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대립 끝에 겨우 해결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해결이라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도 불씨가 되살아나 수송수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형태풍 매미로 인하여 철도가 손실되면서 강원도 일대를 지나는 철도수송이 한달 가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수송차질이 빚어졌다. 이러한 자연 재해는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 수송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